

이재명 “광주군공항 국가 주도 이전…전남, 재생에너지 특화”

DJ센터 유세, 호남 공약 제시…광주, AI 중심도시로 GPU 집중 투입
전기 요금 거리 비례제 도입·지방 이전 기업 혜택·거점 국립대 강화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광주·전남에서 구체적이고 선명한 호남 공약을 제시했다.

‘광주를 대한민국 AI중심도시로 만들고 국가 주도로 광주공항을 이전하겠다’고 약속하고, ‘전남을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놔다. 전남대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17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앞 집중유세에서 “광주를 대한민국 AI 중심도시로 만들고 광주공항을 국가주도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선 공약 중 GPU 5만장 구매 공약 중 많은 부분을 광주에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광주에 현재 GPU 수용능력이 2000장 이라고 하는데 수용 능력을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를 약속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직접 광주공항 이전 문제를 관리해 빠르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지역의 이전 반대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지역민과 충분히 대화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충분한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나주와 광주 시민들앞에서도 다시 한번 전남을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광양, 여수, 순천, 목포 등 이른바 ‘이순신 벨트’ 유세에서도 발표했던 내용으로, 이 후보의 실행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또 지역 거점대학에 대학 지원을 강화해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배출하고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을 늘려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광주·전남 유세에서 “우리나라는 서남해안지역이 재생에너지의 보고”라며 “광주·전남은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해 살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기 5년 내에 모두 실현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기반만큼은 다질 것이라며 희망을 가져도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을 강화해 전력 생산지에서는 싼 값에 전력을 사용할수 있는 상황이 되면, 기업들이 전남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는 전기 요금도 거리 비례제가 도입된다. 전력 송전에는 비용이 만드냐”며 “전국 전기요금이 똑같은 건 이상하다. 생산지 가격이 수송비가 들어가는데 소비자 가격이 같은건 말이 안된다”며 불평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기업들이 싼 값에 전기를 쓰기 위해 전남과 같은 전력자립률이 높은 곳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이외에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에게 파격적인 세제 조건을 주는 등 기업의 지방이전을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기업은 이전했지만 막상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지역 거점대학 지원을 강화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배출하고 이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자신이 줄곧 주장해온 ‘역강부약’(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운다)을 강조하며 “서울대 학생 1인당 지원금보다 전남대 학생 1명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지역 거점대학 지원을 강화가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고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학을 강화하는데 전남대를 포함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그동안 자식 같은 민주당 잘 키워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호남이 민주당 잘 키워더니 잘 자라서 대한민국 정치 잘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인산인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7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입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특별취재단=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이재명 개헌 제안에 김문수 즉각 “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헌 구상을 발표하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개헌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헌정회도 이 후보의 개헌내용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등 차기 정권에서의 개헌 가능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이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 같은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

민 투표에 부치자는 제안도 함께 내놔다.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의 개헌안 발표 이후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슷해 보이는 두 후보간 개헌안은 차이점이 적지 않다. 대통령 임기만 하더라도 이 후보가 4년 연임제를 주장한 반면,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주장했다.

특히 김 후보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 주기를

같이하기 위해 이번 대선 당선자의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이 후보는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안정과 민생 회복”이라며 임기단축안을 사실상 배제했다.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한 뒤 2030년 지방선거와 다음 대선의 주기를 맞추자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다.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윤석열, 사과 한마디 없이 국힘 탈당

오늘 내란 혐의 4차 공판

국민의힘에서 스스로 탈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19일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지만 재판장 변경없이 재판이 잇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4차 공판이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의 증인신문과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

장(준장)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혐의에 관해 윤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입장을 밝히는 모두 절차도 진행된다. 이외에도 이 재판부는 21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인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을 잇따라 심리한다.

한편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힘 탈당’ 김상욱, 민주당 입당

“광주는 민주주의 일깨워준 도시”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울산 남구갑)의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선언했다. 탈당 10일 만의 결단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탈당 후 어느 정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해 오다 민주당과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제가 지지하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권력은 항상 조심시 사용해야 하고 내부적으로 견제·균형을 찾아가야 한다”며 “민주당에 입당해 처음부터, 바닥에서부터 배우며 함께 하며 더욱 건강한 민주당을 만들고 국민을 위한 정

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광주일보와 인터뷰를 한 김 의원은 “광주는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용기와 각성을 일깨워준 도시”라면서 “광주는 정치인이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을 역사로 가르쳐준 도시”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명하지 않고 탈당의 길을 열어준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공당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5·18의 도시 광주는 잘못된 불의에 저항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 곳”이라면서 “12·3 비상계엄을 극복한 이후에 맞는 첫 5·18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5·18 45주년의 의의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지지한 이유

에 대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의료·노동 등 여러가지 산재한 과제들이 더이상 미룰 수 없을 정도까지 밀려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일 잘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변화를 선도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사회 혁신을 주도하는 진보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보수의 가치를 대통령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이 후보라고 판단해 지지선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탈당과 제명의 의미는 다르다”면서 “윤 전 대통령은 탈당이 아니라 제명을 시켜야 하는데, 반헌법적 행위를 바로 잡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